



이순신대교

세계박람회 발판

동·서 아우르는 '해양관광 허브'

달아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14 여수

고속도로·KTX·공항 등 SOC 확충

순천·곡성 등 인근 관광객 2~5배 늘어

정부, 한려대교·해양센터 등 건립 계획

지난 2012년에 열렸던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의 SOC를 확충하는 등 많은 자산을 남긴 국제 행사였다. 단일 행사로 800만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했고, 세계 속에 여수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의미 있는 이벤트였다.

특히 이순신대교와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km 구간의 전라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는 등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전남 동부권의 교통 지도가 확 달라졌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박람회장 부지 매각 등 사후활용 과정은 더디지만, 여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섬진강 일대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중요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이며, 인근의 남해 등 경남지역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 화합이라는 사업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람회가 남긴 것들〉=여수세계박람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내에서 열렸던 문화이벤트 중 최대 규모였다. 박람회장 건립에만 2조1000억원이 들어갔고, 버려진 시멘트저장고를 활용한 스카이다워, 바다 위 무대인 빅오 등 남은 유산도 많다.

과거 정권으로부터 차별만 받아왔던 전남지역이 박람회를 통해 SOC를 한 번에 손을 봤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km 구간의 전라선 복선 전철이 개통돼 KTX 열차 운행이 시작됐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주~광양과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과 덕양~우두 국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등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산업단지진입도로, 시내도로와 주차장, KTX철도, 여객선 바닷길과 여수공항 등이 개통되거나 새 단장했다. 광양만을 가로질러 여수까지 연결되는 이순신대교는 서울 남산(262m)보다 높은 주탑(270m)과 바다 위에 꼭 뻗은 긴 상판(1545m)으로 관람객들을 압도했다.

동서화합을 위해 영호남이 더욱 편하게 오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돼 있다는 말이다. 또 이들 SOC는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해양 관광 중심지〉=관광은 주변 지역으로 파급력이 상당

한 산업이다. 지난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수많은 관람객이 여수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곡성 기차마을과 순천만 등 여수 인근 지역의 관광지도 새롭게 주목받았다.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곡성 등지는 예년보다 2~5배가량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박람회를 통해 아름다운 전경을 알렸다.

여수 일대의 원활한 SOC를 통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이들 관광객이 전남의 인근 지역까지 방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람회장 기간 동안 유명 크루즈가 잇따라 여수박람회장에 조성된 크루즈항에 입항하는 등 여수가 새로운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빅오쇼'도 최근 다시 선보이고 있다. 박람회장 인근의 크루즈항을 통해 관광객이 입항하고, 최고의 쇼인 빅오쇼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여수 일대를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여수~남해 한려대교를 건설해 영호남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SOC를 확충하게 된다. 특히 한려대교의 사업비는 교량으로 건설할 시 1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해저터널 방식으로 진행하면 5000억원으로 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정부가 해저터널 건설을 구상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겨냥해 여수엑스포항도 확충된다. 정부는 크루즈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15만t급 이상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여수엑스포항을 새 단장할 계획이다. 또 남해안 복합해양센터도 설립되고, 요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조선수리산업도 육성된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 1 정부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 일환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일대를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사진은 빅오쇼 모습.
- 2 지난해 3월 여수항에 입항한 이탈리아 '코스타 빅토리아'호의 전경.
- 3 인근 관광지 순천만 습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곡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com